

일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여학생의 출산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

팽기영¹⁾, 김장락²⁾, 강영실³⁾, 홍대용²⁾

라인여성의원¹⁾,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건강과학연구원²⁾,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및 건강과학연구원³⁾

The Related Factors of Attitude toward Childbirth among Female Students in Junior, Senior High School, and University

Ki-Young Paeng¹⁾, Jang-Rak Kim²⁾, Young-Sil Kang³⁾, Dae-Yong Hong²⁾

Line Woman Clinic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Institute of Health Science²⁾,

Department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³⁾,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basal information to establish a proper birth-encouraging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the survey of the attitude towards childbirth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female students in junior, senior high school, and university.

Methods A survey was performed for 2 weeks in June, 2006, for a total of 688 female students which included 185 ones in a girls' junior high school and 242 ones in a girls' senior high school in Sacheon, and 261 ones in two universities in Jinju.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developed by the authors include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attitude towards childbirth, the preference of a son for their future child, the belief on relative importance of family or work after marriage, the seriousness perception of low birth rate in Korea, frequencies of education in school about low birth rate. The attitude was measured by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To what degree do you think you are going to have a child(or children)?'

Results The proportion of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ir future childbirth was 76.2% in junior high school, 63.9% in high school, and 82.8% in university students ($p < 0.01$).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with positive attitude towards future childbirth were school grade, preference of a son for their future children, and belief on relative importance of family or work after marriage.

Conclusions It suggests that the related factors with positive attitude towards future childbirth need to be considered to make a proper birth policy.

Key words : Attitude towards childbirth, Related factors

* 교신저자: 김장락, 경남 진주시 칠암동 92 전화: 055-751-8792, 팩스: 055-751-8790
E-mail: jrkim@gnu.ac.kr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르는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저출산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었다[1]. 196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2], 경제발전 및 산업화와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온 가족계획사업의 성과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3,4].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난 198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합계출산율로 2.1)인 2.08명에 도달하였고, 1987년에는 1.55명까지 낮아졌다. 그 후 조금씩 상승하여 1992년에는 1.78명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 다시 낮아지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은 1997년 말 시작된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 문제, 고용불안정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회복되지 못한 채로 지속적 감소를 보여 왔다[5-8]. 2000년에는 1.47명으로 잠시 상승(필레니엄베이비 붐이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에는 1.30명, 2002년에는 1.17명,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으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세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5]. 이는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영국(1.79명, 2005), 프랑스(1.92명, 2005), 미국(2.05명, 200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1.6명(2002)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9-10]. 2001년 기준 GDP 대비 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투자는 OECD 평균 1.9%, EU 평균 2.2%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0.1% 수준에 그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3,10].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48,138천명으로 이는 1970년 32,244천명에 비해 약 1.5배 증

가하였다[11].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11]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6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30년 48,635천명, 2050년 42,343천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인구증가율은 2005년 현재 0.21%, 2010년 0.26%에서 점차 둔화하여 2018년 0.02%에 도달한 후 2019년(-0.00%)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0.25%, 2050년 -1.07%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2004 2월에 설치되었으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었다[12-13]. 2005년에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위원회로 격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새로마지플랜 2010'이 마련되었다[14].

낮은 출산율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15]. 만약 낮은 출산율의 중요한 원인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원인을 규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율에 대한 일부 이유와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혼부인(15-44세)이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분석[16]에 따르면, 1991년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비율이 90%였으나, 1997년에는 74%, 2000년에는 58%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외에도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한 태도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전국표본에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7],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8,19]가 있다. 그러나 미래의 출산세대인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하나[20]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출산을 하게 될 주체인 여중생, 여고생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자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사천 및 진주시 지역 소재 학교의 여학생들이었다. 여자중학교 1개교에서 각 학년별로 임의 선정된 1학년 62명, 2학년 65명, 3학년 61명으로 총 188명의 여자중학생, 여자고등학교 1개교에서 각 학년별로 임의 선정된 1학년 81명, 2학년 80명, 3학년 83명으로 총 244명의 여자고등학생, 한 대학교의 간호학과 83명, 식품영양학과 75명, 그리고 보건대학 간호과 106명으로 총 264명의 여자대학생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696명으로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688명이었다.

본 연구는 출산태도와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조사내용은 총 43개 문항에 걸친 여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자녀의 성에 대한 선호도, 결혼 후 가정 및 직장 생활 계획,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인식 및 원인과 대책에 대한 생각, 학교에서 받은 저출산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이었다. 출산에 대한 태도는 '자녀는 출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의 대답(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한 해도 좋다,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으로 측정하였다.

조사는 담임교사 또는 대학의 학과 조교가 설문 취지를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약 30분 동안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개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06년 6월 중 2주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윈도우용 SPSS 12 판(SPSS Inc., Chicago, IL)으로 대상자 특성과 출산 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χ^2 검

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는 설문 문항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편이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중립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문항에서는 '매우 심각하다' 혹은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심각하다'로, '심각하지 않다' 혹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로 재범주화 하였다. 아들 선호도와 결혼 후 생활 계획에 대한 생각과 출산 태도의 관련성 분석은 '출산하지 않겠다'는 경우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경우를 각각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출산 태도의 관련 요인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은 출산 태도를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중립 포함)로 재범주화 하여 종속변수로 하였다. 공변수는 학교등급 변수와 단순분석에서 $p < 0.15$ 수준에서 유의하였던 변수들을 포함하는 방법[21]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차비가 1보다 큰 것은 출산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결 과

1. 출산에 대한 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중학생이 72.4%, 고등학생이 81.0%, 대학생이 83.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1).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은 중학생이 76.2%, 고등학생이 63.9%, 대학생이 82.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낮고 대학생은 높았다. 이것을 학년별로 세분해서 보면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은 중학교 1학년이 79.0%, 2학년이 75.4%, 3학

4 일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여학생의 출산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

표 1. 학교 등급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분포 단위 : 명(%)

구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소계	p 값*
	심각하다	모르겠다	심각하지 않다		
중학교	134(72.4)	35(18.9)	16(8.6)	185(100.0)	0.04
고등학교	196(81.0)	28(11.6)	18(7.4)	242(100.0)	(0.029)
대학교	218(83.5)	25(9.6)	18(6.9)	261(100.0)	
계	548(79.7)	88(12.8)	52(7.6)	688(100.0)	

*X² test (X² trend test)

표 2. 학교 등급 및 학년별 출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소계	p 값*
		긍정적	중립	부정적		
중학교	1학년	49(79.0)	12(19.4)	1(1.6)	62(100.0)	0.000 (0.062)
	2학년	49(75.4)	16(24.6)	0(0.0)	65(100.0)	
	3학년	43(74.1)	14(24.1)	1(1.7)	58(100.0)	
소계		141(76.2)	42(22.7)	2(1.1)	185(100.0)	
고등학교	1학년	47(58.8)	29(36.3)	4(5.0)	80(100.0)	
	2학년	50(62.5)	24(30.0)	6(7.5)	80(100.0)	
	3학년	57(70.4)	23(28.4)	1(1.2)	81(100.0)	
소계		154(63.9)	76(31.5)	11(4.6)	241(100.0)	
대학교	1학년	45(78.9)	11(19.3)	1(1.8)	57(100.0)	
	2학년	67(82.7)	14(17.3)	0(0.0)	81(100.0)	
	3학년	64(81.0)	13(16.5)	2(2.5)	79(100.0)	
	4학년	41(91.1)	4(8.9)	0(0.0)	45(100.0)	
소계		217(82.8)	42(16.0)	3(1.1)	262(100.0)	
계		512(74.4)	160(23.3)	16(2.3)	688(100.0)	

*X² test (X² trend test) for association between school grade and attitudes

년이 74.1%, 고등학교 1학년이 58.8%, 2학년이 62.5%, 3학년이 70.4%, 대학교 1학년이 78.9%, 2학년이 82.7%, 3학년이 81.0%, 4학년이 91.1%로 중학교 1학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낮았다가 이후 대학교 4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2).

2. 출산 태도의 관련 요인

가정환경 변수와 출산 태도와의 관련성을 보면, 종교, 아버지의 학력, 조부모님과 동거

여부, 부모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생각 및 형제의 유무 등은 출산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다만, 종교에 있어 천주교 학생인 경우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인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표 3).

아들의 필요성, 결혼 후 직장파 자녀의 비중은 출산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 예라고 한 경우 긍정적인 출산 태도를 가진 비율이 90.6%, 아니오는 72.7%, 모르겠다는 77.4%로 유의한 차이가 있

표 3. 가정환경 변수에 따른 출산 태도

단위 : 명(%)

구분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p 값*
	긍정적	중립	부정적	소계	
종교					0.079
불교	178(75.4)	54(22.9)	4(1.7)	236(100.0)	
기독교	96(73.8)	28(21.5)	6(4.6)	130(100.0)	
천주교	24(82.8)	5(17.2)	0(0.0)	29(100.0)	
기타	1(20.0)	4(80.0)	0(0.0)	5(100.0)	
없다	212(73.9)	69(24.0)	6(2.1)	287(100.0)	
아버지 학력					0.900
초등학교 졸업	30(75.0)	10(25.0)	0(0.0)	40(100.0)	(0.577)
중학교 졸업	63(76.8)	18(22.0)	1(1.2)	82(100.0)	
고등학교 졸업	281(73.4)	93(24.3)	9(2.3)	383(100.0)	
대학교 졸업이 상	125(74.9)	37(22.6)	5(3.0)	167(100.0)	
조부모와 동거 여부					0.129
같이 살고 있다	140(70.7)	55(27.8)	3(1.5)	198(100.0)	
같이 살고 있지 않다	352(76.0)	98(21.2)	13(2.8)	463(100.0)	
가사분담					0.496
잘되고 있다	185(72.8)	64(25.2)	5(2.0)	254(100.0)	(0.545)
그저 그렇다	146(76.4)	40(20.9)	5(2.6)	191(100.0)	
잘되고 있지 않다.	93(71.0)	32(24.4)	6(4.6)	131(100.0)	
형제 유무					0.611
없다	38(70.4)	15(27.8)	1(1.9)	54(100.0)	(0.981)
1명	298(75.8)	84(21.4)	11(2.8)	393(100.0)	
2명 이상	176(73.0)	61(25.3)	4(1.7)	241(100.0)	
계†	512(74.4)	160(23.3)	16(2.3)	688(100.0)	

* X^2 test (X^2 trend test)

† 항목별 소계와 계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결측치 때문임

었다. 결혼 후 직장보다 자녀 양육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 긍정적인 출산 태도를 가진 비율이 84.3%, 직장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는 훨씬 낮은 25.0%, 자녀와 직장에 같은 정도의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 72.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할지에 대한 생각이나 양육 담당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출산 태도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4).

학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횟수와 출산 태도와의 관련성을 보면, 교육을

연 5회 이상 받은 경우 긍정적인 출산 태도를 가진 비율이 91.7%, 연 1-4회의 교육을 받은 경우 78.3%, 받은 적이 없는 경우 72.7%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긍정적인 출산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5).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출산 태도의 관련 변수는 학교등급, 아들의 필요성 및 결혼생활에서 직장과 자녀의 비중이었다. 즉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은 긍정적 출산태도에 대한 교차비가 0.68, 대학생은 교차비가 1.76이었다.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

표 4. 아들 선호도와 결혼 생활 계획에 따른 출산 태도

단위 : 명(%)

구분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p 값*
	긍정적	중립	부정적	소계	
아들의 필요성					0.001
예	116(90.6)	12(9.4)	0(0.0)	128(100.0)	
아니오	304(72.7)	107(25.6)	7(1.7)	418(100.0)	
모르겠다	89(77.4)	24(20.9)	2(1.7)	115(100.0)	
맞벌이 여부					0.226
예	334(75.1)	101(22.7)	10(2.2)	445(100.0)	
아니오	30(88.2)	4(11.8)	0(0.0)	34(100.0)	
배우자 의견에 따르겠다	65(85.5)	11(14.5)	0(0.0)	76(100.0)	
모르겠다	75(75.8)	23(23.2)	1(1.0)	99(100.0)	
직장과 자녀의 비중					0.000
자녀에 더 비중	257(84.3)	46(15.1)	2(0.7)	305(100.0)	
직장에 더 비중	7(25.0)	15(53.6)	6(21.4)	28(100.0)	
자녀, 직장 같은 비중	213(72.2)	79(26.8)	3(1.0)	295(100.0)	
모르겠다	34(59.6)	18(31.6)	5(8.8)	57(100.0)	
양육 담당자					0.507
부부	387(79.3)	94(19.3)	7(1.4)	488(100.0)	
부모	82(78.1)	22(21.0)	1(1.0)	105(100.0)	
친인척	5(83.3)	1(16.7)	0(0.0)	6(100.0)	
양육시설	27(62.8)	15(34.9)	1(2.3)	43(100.0)	
보모	4(66.7)	2(33.3)	0(0.0)	6(100.0)	
계†	509(77.0)	143(21.6)	9(1.4)	661(100.0)	

*X² test

† 출산하지 않겠다는 경우 제외

표 5. 학교에서의 저출산 교육 횟수에 따른 출산 태도

단위 : 명(%)

구분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p 값*
	긍정적	중립	부정적	소계	
저출산 교육					0.105
자주 있다(연5회 이상)	11(91.7)	0(0)	1(8.3)	12(100.0)	(0.159)
가끔 있다(연1-4회)	126(78.3)	31(19.3)	4(2.5)	161(100.0)	
없다	372(72.7)	129(25.2)	11(2.1)	512(100.0)	
계	509(74.3)	160(23.4)	16(2.3)	685(100.0)	

*X² test (X² trend test)

는 경우에 비하여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경우 긍정적 출산 태도에 대한 교차비가 2.75, 그렇지 않다는 경우 교차비가 0.78이었다. 결혼 후 자녀와 직장에 같은 정도의 비중을 두겠다

는 경우에 비하여 자녀 양육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 긍정적인 출산 태도에 대한 교차비가 2.09, 직장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는 교차비가 0.12,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는 교차비

표 6. 긍정적 출산 태도의 관련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관련요인	변수 값	교차비	95%신뢰구간	p값
학교 등급	중학교	1		0.000
	고등학교	0.68	0.41-1.10	
	대학교	1.76	1.01-3.06	
종교	없다	1		0.283
	불교	0.89	0.57-1.40	
	기독교	1.007	0.57-1.73	
	천주교	1.03	0.36-2.91	
	기타	0.07	0.01-0.75	
아들의 필요성	모르겠다	1		0.001
	예	2.75	1.26-5.98	
	아니오	0.78	0.46-1.31	
직장과 자녀의 비중	자녀와 직장을 같은 비중	1		0.000
	자녀에 더 비중	2.09	1.35-3.22	
	직장에 더 비중	0.12	0.04-0.31	
	모르겠다	1.03	0.50-2.13	
저출산 교육	없다	1		0.776
	있다	1.07	0.66-1.75	
p= 0.543(Losmer - Lemeshow 적합도 검정)				

표 7. 학교 등급별 저출산 문제를 접한 매체 단위 : 명(%)

구분	저출산 문제를 접한 매체					소계	p 값*
	학교	TV등 방송매체	신문	인터넷	기타		
중학교	19(10.3)	139(75.5)	8(4.3)	15(8.2)	3(1.6)	184(100.0)	0.319 (0.983)
고등학교	25(10.3)	176(72.7)	24(9.9)	14(5.8)	3(1.2)	242(100.0)	
대학교	26(10.0)	197(75.5)	18(6.9)	12(4.6)	8(3.1)	261(100.0)	
계	70(10.2)	512(74.5)	50(7.3)	41(6.0)	14(2.0)	687(100.0)	

*X² test (X² trend test)

가 1.03이었다(표 6).

고찰

3. 저출산 문제를 접하게 된 매체와 출산 태도
학교등급별 저출산 문제를 접한 매체로는 TV등 방송매체가 74.5%로 높았고, 학교 교육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0.2%로 낮았다. 학교등급별과 매체의 분포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7).

통계청의 2005년 보고[5]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요인은 먼저 출산연령 여성인구의 감소, 20대 여성의 출산율 감소, 유배우율의 감소 및 결혼 연령의 연장, 여성의 학력과 취업률의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결혼과 출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3,10,22,23],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에 대한 가족지원 기능의 약화[10,17], 남녀의 전통적 역할 격차의 상존[17,22], 자녀양육을 배려한 고용환경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의 부재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3,10,23]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출산에 대한 태도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출산 세대인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적절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중학생이 72.4%, 고등학생이 81.0%, 대학생이 83.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전국 표본 조사[17]의 20-44세 미혼 여성에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78.7%로 중학생을 제외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저출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은 74.4%로 중학생이 76.2%, 고등학생이 63.9%, 대학생이 82.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서 낮았고 대학생에서 높았다. 2005년 전국표본조사[17]에서 20-44세 미혼 남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53.8%와 대구, 경북 지역의 여고생 중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 63.0%[20]와 비교하면, 본 연구 대상자들이 출산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도 여고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대구, 경북 지역과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전국 조사보다 저출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출산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역적 차이인지, 시간적 차이인지, 또는 연령에 따른 차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다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출산 태도의 관련 변수는 학교등급, 아들의 필요성 및 결혼생활

에서 직장과 자녀의 비중이었다. 즉 여대생, 여중생, 여고생의 순으로 출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들을 원할수록, 미래의 결혼 생활에서 직장보다 자녀 양육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계획을 가질수록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고생은 중학생보다 저출산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 비율은 더 낮은 이유로는 고등학교에서의 입시 위주의 학업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이 덜 가지거나, 저출산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적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에서의 적극적인 저출산 교육이 더욱 요망된다고 하겠다. 특히 학년별로 볼 때 저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가장 낮은 고등학교 1학년이 저출산 교육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된다.

미래의 자녀로 아들을 선호하는 경우 출산이 상당히 긍정적인 점은 본 연구에서 특이한 소견이지만, 출산을 하는 사람 중에서 아들 선호자가 많으면 지금은 많이 희석된 남아 초과 현상이 또 다른 사회문제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들을 낳아야만 대를 잇는다는 전통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자녀 양육 자체가 의미 있고 행복한 일임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결혼 후 자녀에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는 긍정적 출산 태도가 높았지만, 자녀보다 직장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28명의 소수 학생들은 긍정적 출산 태도가 25%로 아주 낮았다.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24]에서는 육아 휴직을 남자도 의무적으로 6주 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여성이 빨리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1993년 ‘부모 휴가’ 가운데 최소 4주를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 뒤 의무기간은 6주로 늘었고, 80년대 10%대였던 부모휴가 사용률도 90%로 경

층 뛰었다. 1993년 1.7이던 합계 출산율도 2006년 1.9까지 올랐다. 노르웨이는 이 밖에 2년의 추가 육아휴직이나 양육수당도 지원한다.

학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횟수와 출산태도와 관련성을 보면, 저출산 교육을 연 5회 이상 받은 경우 긍정적인 출산 태도를 가진 비율이 91.7%, 연 1-4회의 교육을 받은 경우 78.3%, 받은 적이 없는 경우 72.7%로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 긍정적 출산 태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교 교육은 미래의 출산세대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학교에서 접한 비율이 10%에 불과하여 TV 등의 방송매체의 75%에 비하여 매우 낮았고, 교육의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을 볼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학교 교육은 앞으로 양적으로는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하며, 질적으로도 개선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출산 태도에 대한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여고생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대한 한 연구[20]에서 거주도시, 학교 계열 및 종교가 긍정적인 결혼 태도와 관련요인이라고 하였고, 결혼을 원하는 여고생에서 출산 관련요인은 역시 거주도시와 종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본 연구와 연구 방법, 연구 시기, 대상 또는 지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 인지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 지역에 국한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공이 간호학인 학생)를 선택함으로써 각 학교 등급별에 따른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출산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나, 향후 출산 행태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출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출산에 대한 태도는 ‘자녀는 출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

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연구와 유사한 방법이지만,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단 하나의 문항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의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으며, 내적 일관성은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 또 다른 제한점이다.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출산을 하게 될 주체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및 관련 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출산 정책의 수립이나, 저출산 관련 교육에서는 본 연구의 저출산 태도와 관련된 요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향후 출산을 하게 될 주체인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앞으로의 적절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사천 및 진주시 지역의 1개 여자중학교, 1개 여자고등학교 및 2개 대학교의 재학생 총 688명이었다. 조사내용은 여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자녀의 성에 대한 선호도, 결혼 후 가정 및 직장생활 계획,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인식 및 원인과 대책에 대한 생각, 학교에서 받은 저출산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이었다. 조사기간은 2006년 6월 중 2주간이었으며, 설문은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 인식에서 중학생은 72.4%, 고등학생은 81.0%, 대학생은 83.5%로 상급학교 여학생일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에서 중학생은 76.2%, 고등학생은 63.9%, 대학생은 82.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생에 비

해 고등학생은 낮고 대학생은 높았다.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 예라고 경우 긍정적인 출산 태도를 가진 비율이 90.6%, 아니오는 72.7%, 모르겠다는 경우는 77.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 후 직장보다 자녀 양육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 긍정적인 출산 태도를 가진 비율이 84.3%, 직장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는 훨씬 낮은 25.0%, 자녀와 직장에 같은 정도의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 72.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출산 태도의 관련 변수는 학년, 아들의 필요성 및 결혼생활에서 직장과 자녀의 비중이었다. 즉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은 긍정적 출산 태도에 대한 교차비가 0.68, 대학생은 교차비가 1.76이었다.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에 비하여 예라고 하는 경우 긍정적 출산태도에 대한 교차비가 2.75, 아니오는 교차비가 0.78이었다. 결혼 후 자녀와 직장에 같은 정도의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에 비하여 자녀 양육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 긍정적인 출산 태도에 대한 교차비가 2.09, 직장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는 교차비가 0.12,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는 교차비가 1.03이었다.

본 연구 결과 여학생들의 출산 태도는 학교 등급, 아들의 필요성 및 결혼 생활에서 직장과 자녀의 비중에 대한 생각이 관련 있었다. 향후 출산 정책의 수립이나, 저출산 관련 교육에서는 본 연구의 저출산 태도와 관련된 요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Kang KS, Byun MH, Jung EM. A study on factor analysis of affecting low fertility using time-series dat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05; 10(3) : 127-145 (Korean)
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based on vital registrati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3. Lee SS, Shin IC, Cho NH, Kim HK, Jung YS, Choi EY. The Causes of low-fertility rate and synthesis countermeasure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Korean)
4. Lee SS, Kim TH, Kim HK, Choi EY, Jung YS, Park KY, Kwon BK, Kang JA, Lee SY. The population relation contents of textbooks and improvement directions.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Korean)
5.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causal analysis of decreased childbirth.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Korean)
6. Kim SK, Cho AJ, Kim YK, Park SK, Lee KW. Year 2003 National fertility surve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4 (Korean)
7. Park SJ, The Causes and future solutions of the low-fertility problems. *Dongduk Women's Study* 2003; 8: 121-145 (Korean)
8. 통계청. 저출산 시대의 신 인구정책 특별 심포지엄 등, 통계청, 2004
9.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Projections.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Korean)
1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ocio-economic policies for distributional improvement and social cohesi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6 (Korean)
1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ocial indicators in Korea.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Korean)

12. 법무부.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시행령. 법무부, 2005
13. Kim HS. The national government's policies of low fertility.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9th Spring Conference Proceedings. 2006, pp.56-59(Korean)
14.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1st schematic design of an aging society with low fertility(SEROMAGI Plan 2010).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06(Korean)
15. 이시백. 저출산 시대의 신인구 정책 및 여성인력 활용 대책. 여성특별위원회 위원간담회 자료집, 2001, 쪽17-25
16. 김승권.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집. 2003, 쪽49-73
17. Lee SS, Jung YS, Kim HK, Choi EY, Park SK, Cho NH, Shin IC, Do SR, Cho SK, Kang JH. A trend investigation of nationwide marriage and delivery In 200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Korean)
18. Kim YH, Lee NY. A Study on the view of college students birth and marriage.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9th Spring Conference Proceedings. 2006, p.37 (Korean)
19. Go GI. A study on values of marriage and outlooks of children among college student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Care. Master's thesis, 2006
20. Kang PS, Jeong YK, Hwang TY. Perception and attitude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06; 10(1): 31-39(Korean)
21. Katz MH. Multivariable analysis(a practical guide for clinicians).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66
22. Park BI. A study of fertility decline factors in Korea.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4(Korean)
2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ause of low fertility and policy direc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111, 2006(Korean)
24. 한겨레신문 기사. 2007년 5월 10일. Available from: URL: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208299.html>